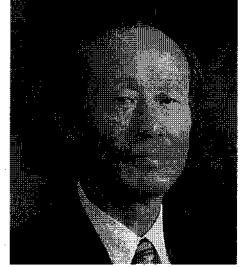


IMF와 파렛트 산업



KPA 전무이사
박 은 규

1. 환율상승과 파렛트 산업

우리나라 모든 산업계가 격고 있는 IMF 寒波는 파렛트 業界 또한 극심한 경영위기를 가져왔다. 파렛트 생산메이커 대부분이 중소기업 규모인데다 원자재 특히 목재파렛트 업계는 일반적으로 원자재를 유전스(usance)방식에 의한 3~5개월의 외상수입이어서 그에 따라 환차손의 피해가 막심하였다고 본다. 환율상승에 따라 목재파렛트의 가격은 '97년도에 비하여 약 30~40% 상향 조정 되었다. 다만 최근 동남아시아 등 목재 수출국도 심각한 외환위기로 점차 목재수출가격이 하향되어 가고 있다. 남양재의 경우 97년도 m³당 \$280에서 최근 \$200선에, 북양재는 \$180에서 네고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환율이 점차 하향안정되면 목재파렛트의 가격도 년 초 40% 인상수준에서 다소 하향 안정되리라 보고 있다. 플라스틱 파렛트도 가격 인상요인이 30% 이상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제유가의 유례없는 하락으로 국내 HDPE가격도 t당 100만원 수준으로 점차 하향 안정되어가고 있지만, 원자재구매에 있어서 과거처럼 목재의 유전스방식 수입이 쉽지 않고 국내에서는 현금으로 구입하여야 함으로 파렛트 생산 메이커의 고충은 매우 심각하다.

석유화학업계도 HDPE구매시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파렛트 제작 납품대금에 있어서 파렛트를 구매하는 기업측에서는 현금결제가 어렵고 신규발주는 가능한 한 줄이며 납품대금의 수취어음 또한 지금과 같은 금융신용공황하에서는 할인도 어렵고 부도등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어, 파렛트 생산업계는 2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제 파렛트 메이커 역시 원자재가 15% 이상 올랐으며 부품산업, 단조업계, 기계산업 등의 회복없는 신규수요가 극히 부진할 것으로 본다.

2. '98년도 파렛트 시장 전망

금년도 신규 파렛트 시장은 30%이상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국내 산업활동이 침체되면서 내수부문의 전 업종이 급격히 침체되어 파렛트의 신규발주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기업내의 신규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교체, 보충등의 대체수요도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기업의 생산활동침체, 자금경색이 주된 원인이나 환율상승으로 인한 파렛트 가격 상승과 국내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인건비, 구인난 등의 완화 등도 파렛트 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수출산업 분야에 있어 국제 경쟁력이 회복된 업종의 수출화물용(일회용) 파렛트는 1/4분기 현재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회용 목재파렛트 가격도 '97년에 매당 10,000~13,000원 내외에서 13,000~15,000원 수준으로 거래되면서, 일부 생산 메이커들은 상당한 제작 불량

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요컨대 우리나라 경제의 사황이 걸려있다고 볼 수 있는 수출부문이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지원과 수출업계의 노력으로 달러환율상승의 매리트를 잘 활용하여 무역수지가 1/4분기와 같은 양상으로 계속 크게 호전된다면 국내 산업경제 활동도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갈 수 있다고 본다. 파렛트 시장 수요는 단기적으로 1~2년간 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우나 중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일관파렛트화가 정부의 물류표준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국가표준파렛트 보급 촉진 정책과 맞물려 다시 매년 20%이상의 성장기를 맞을 것으로 보며 특히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산물 유통근대화 추진 계획에 따라 농산물의 파렛트화도 점차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3. 파렛트 시장 국제동향

미국과 유럽은 전통적으로 목재 파렛트가 90%이상의 주된 시장으로 특히, 미국의 파렛트는 발전보급과정에서 국토의 광대함으로 회수시스템이 어렵고 목재가 풍부하여 거의 일회용(One cycle or one way)으로 파렛트가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패턴의 큰 변화가 일고 있다. 일단 출하된 일회용 파렛트를 회수하여 수리하고 다시 납품하는 업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종전에 재사용비율이 40%에서 60%로 증가하였다. 이는 지구환경문제가 점차 세계적인 Issue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으로 벌채면적이 매년 축소됨에 따라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측면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또한 파렛트 렌탈사업의 세계 최대 회사인 호주의 Chep社가 북미에 상륙 2,700만매의 거대한 풀 시스템 회사로 급격히 발전하여 유럽 3,000만매(호주 1,000만매) 등 파렛트로 세계를 석권할 정도로 발전하여 가고 있어, 미국 파렛트 제작업자들도 점차 파렛트 풀 회사를 설립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여하튼 지구 환경보호와 목재파렛트의 상관관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차츰 플라스틱파렛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수년내 플라스틱파렛트 시장의 괄목할만한 발전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 플라스틱 파렛트 사용 소재별 점유율 세계 1위

자국내 파렛트 소재별 시장 점유율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플라스틱 파렛트 사용국이다. 우리나라의 플라스틱파렛트의 M/S는 우리나라 파렛트 전체시장의 27~30%로 일본의 12~15%, 미국, 유럽 3~5%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파렛트가 자국 파렛트 시장의 M/S 1위가 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우리나라는 산과 평야의 비율이 70:30이지만 목재수급은 95%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파렛트 소재는 100% 수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값싼 목재원자재 공급이 불가능한 반면 플라스틱 파렛트 원자재인 HDPE는 (석유는 100% 수입이지만) 석유화학 공업이 발전하여 타국에 비하여 가격, 구매조건 등 쉽게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고 가전용기 등 플라스틱 사출성형 공업의 지면이 넓다.

둘째, 목재파렛트는 지금까지 단순가공의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누구나 손쉽게 제작 할 수 있어 치열한 수주경쟁이 가격경쟁화하여 품질, 규격 등 질적인 향상을 이루지 못하여 쉽게 파손,

폐기됨으로 내구연한이 짧고 수리비용 등의 과도한 비용이 늘어나 플라스틱 파렛트의 반영구성이 쉽게 먹혀 들어 갔다고 본다. (특히 구내 보관용 파렛트 부문에서)

셋째, 88올림픽을 전후로 국내 3D 업종기피현상과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하역기계화에 따른 파렛트 보급이 촉진되면서 목재파렛트의 짧은 내구연한, 보수, 폐기 비용 증가와는 반대로 플라스틱 파렛트 생산메이커는 파렛트 제작 금형이 속속개발 비치되어 파렛트의 가격이 크게 하향 안정되었으며, 플라스틱 파렛트의 단점인 화물미끄러짐 현상과 온도에 따른 수축, 휨 등의 현상이 꾸준히 개선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른나라보다 플라스틱 파렛트 보급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이점을 잘살려 세계적으로 점차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플라스틱 파렛트는 이러한 우리의 경험을 앞으로 생산기술적 측면에서 더욱 연구개발에 힘써 플라스틱 파렛트의 단점이 보완된다면 우리나라의 유망한 수출산업의로의 발전도 가능하다고 본다.

5. 국제무역과 파렛트 수출 연계방안 모색해야 노력여하에 따라 앞으로 유망한 수출상품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국이며 수출없이 국가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수출화물에 있어서 흔히 일회용으로 불리는 수출화물용파렛트는 상품수입측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 일반관행이다. 지금까지는 세계각국이 파렛트의 소재, 재질, 규격, 가격 등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고 소홀히 하여왔으나, 독일의 경우 포장 폐기물처리법에 따라 자국내에서 사용되어지는 규격의 파렛트가 아닌 것은 수입업자가 그 폐기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이며 이때 파렛트의 규격, 소재, 품질, 가격 등의 상담이 점차 수출상담과 동시에 이루어 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파렛트가 수출상품화 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운임이었다. (부피와 무게)

파렛트 제작 메이커들은 수출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수입국측과 상담시 상품수입과 이에따르는 파렛트를 단순한 수출입시 일회용으로 끝나는 파렛트가 아닌 상품으로 동시에 수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파렛트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되면 파렛트도 훌륭한 수출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 파렛트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보급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파렛트 수출은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무역과 연계하여 우리나라의 파렛트 산업을 수출산업화하려면 다음 몇가지 점에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1. 파렛트 생산업체는 수출업체, 무역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수출입 무역 실무자들에게 파렛트에 관한 지식을 폭 넓게 제공하여 갖추도록 할 것
2. 각국의 국가표준파렛트 규격, 품질기준을 숙지하고 주요 국가별 파렛트 가격, 사용실태를 파악할 것
3. 소재별 파렛트의 장단점을 연구하여 그 단점 보완에 노력하고 자원재활용 신소재에 의한 저렴한 파렛트 제작에 힘쓸 것 등이다.

지금까지 파렛트가 수출산업화 하지 못한 주요원인은 부피와 중량에 따르는 운임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수출입화물의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국에서

계속 사용될 수 있는 파렛트를 수출상품과 같이 네고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수입측이나 수출측 모두에게 메리트를 창출해 줄 것이다. 특별히 파렛트의 규격이나 재질, 품질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수출용화물의 일회용 파렛트는 가능한한 자원재활용 소재의 저렴한 파렛트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환경보호, 자원재활용)

6. 자원재활용 저렴한 파렛트 신소재 개발해야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파렛트의 소재에 있어서는 목재건 프라스티이건(석유), 철제, 종이 등 기초 원자재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파렛트는 파손폐기되면 일종의 산업폐기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쓰레기로 전락한다. (회수비용의 과다로 목재폐파렛트가 방치되어 버려짐)

2000년대초에 가면 우리나라도 매년 1,000만매의 폐기파렛트가 발생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며 폐기물에 의한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파렛트 사용비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

- ① 파렛트의 품질을 높여 내용연수를 늘려야 하고
- ② 폐파렛트의 자원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며
- ③ 파렛트 규격을 표준화하여 파렛트 공동이용(파렛트풀 시스템) 시스템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 ④ 파렛트 사용현장요원들의 올바른 파렛트의 취급,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 ⑤ 특히 환경보호, 자원재활용의 관점에서 국내 폐자원, 목재(파렛트, 가구, 폐기목), 폐프라스틱, 폐섬유, 폐타이어 등을 활용하여 값싼 파렛트 신소재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폐목재의 재활용으로 생산가능한 이진산업(주)의 그린파렛트, 폐프라스틱 100% 재활용가능한 번영파렛트, 한솔포럼의 MDF 등은 자원재활용 파렛트 신소재로써 좋은 예이다. (특히 수출화물 1회용으로)

